



말씀

“관상용이 아닌 먹히는 삶(열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곧 비유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안에서 생명의 씨앗(말씀)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전례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주안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쁘게 먹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맺은 풍성한 열매는 보기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관상용이 아니라) 맛있고, 또 좋은 영양분을 담아 많은 이들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 기쁨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풍성하고 또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오늘 두 번째 독서의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처가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진열장에 보관되어야 할 전시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그 누구도 상품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판매용이 아닐 뿐더러,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기쁘게 먹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번 한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요셉) 신부
탈리대(해병9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5,10-11
회 답 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 2 독 시 로마 8,18-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마태 13,1-23<또는 13,1-9>
영 성 제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진리를 살다

유의할 것은 지역 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곤 지향이 보편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라는 명칭에서 ‘보편 지향 기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향은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우들 자신이 지향을 작성하는 것이 이 기도 정신에 맞습니다. 매일미사책에 제시되어 있는 기도문은 예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예문은 단순히 참고용이지 온 나라가 주일마다 특색도 없이 동일한 내용의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공연히 의무감에서 바치는 형식적 기도나 아무런 구체성도 없는 막연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이 기도시간을 실증나게 만들기 쉽습니다.

공동체의 응답은 여러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날 전례에 맞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복음이 믿음을 가르친다면 응답 환호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주례 사제는 기도의 시작과 마침을 인도합니다. 기도 지향을 바치는 곳은 독서대가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선창자, 독서자 또는 다른 평신도가 기도 지향을 말하도록 지침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이 기도를 더욱이 해설대에서 바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공동체가 직접 보편 지향 기도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기도의 지향은 반드시 성부 또는 성자께 바쳐야 하며,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 성녀들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흔치 않은 잘못된 보편 기도 형태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 “보편 지향 기도는 짧은 강론이나 짧은 신앙 고백, 일간지의 사설이나 방송의 논평 또는 그 날의 시사 정치가 아니다. 사람들은 단체나 기관 또는 협회가 주관하는 전례안(典禮案) 안에서 천상과 지상의 회원들에게 하늘을 설명하고, 여기는 무엇이고, 각자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 단체의 정강이나 계획을 다시 한 번 뚜렷이 인식시키는 아주 자상한 수업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T. Schnitzler)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선포를 들은 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 응답합니다. 교회는 미사 전례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수세기를 두고 이러한 임무를 실천해 왔습니다. 모든 염려지사를 하느님께 청원하는 교회의 끊임없는 실천을 해 온 교회의 오랜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또한 계승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에 맡겨드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한 발 앞서 가신 분

말하여라 영길아
길에서 무얼
보았더냐?
"조용히
한 발 앞서
함께 걸어주시던
그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상화이야기

숲 속의 성모지



프리 필리포 리피(1406-1469)
1460년 작,
패널 위 유화 127 X 116 cm
베를린 미술관, 독일 베를린

8살에 고아가 되어 수도원에 자란 프리 필리포 리피는, 그 덕에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그림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 그림은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권력가였던 메디치 가문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는데,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보통 경배화에서 마구간의 동물이나, 성 요셉, 목동들을 모두 그려 넣은 것과 달리, 이 그림에서는 풀밭 위에 놓여계신(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느님과 비둘기의 모습을 한 성령의 모습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이 누워계시는 곳은 풀과 꽃으로 가득 차 폭신해 보일 정도이다. 우리는 이 깊은 산속에서 두 손을 모아 지금 이 장면에 동참할 수 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아름답고 조용한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씨가 자라날 수 있는 양분이 되길 바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은하수 석전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7월 16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7월 1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